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한 제언 (5)

대화…갈등 풀 첫번째열쇠

전환의 문턱에서 이것만은 해결하자
좌담 : 불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자**:새학기 들어 시작된 등록금 협상 등 학생과 학교의 의견대립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속에서도 교수, 직원, 학생 3주체 간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폭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각자의 위상정립과 학내에 팽배한 서로간의 불신을 해결하는 방안들, 그리고 현 제반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자리에서는 왜 학원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었으면 합니다. 각 구성체의 대표자가 아닌 경희공동체냐의 한 구성원으로 솔직한 자기견해가 피력되고 논의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현재 대학사회가 '위기'로 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학은 정권의 한계에 갇혀 왔습니다. 정권의 한계에 따라 사학의 운신 폭이 정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인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오랜 대 정부 투쟁을 통해 현재 학생회 조직은 그 어느시기보다 튼튼해졌습니다. 반면에 뚜렷했던 그들의 투쟁대상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대상을 학교로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하여튼 대학은 본명히 변해야 합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학생들과 오랜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유교적인 사제관(師弟觀)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므로 권리주장이나 의사표현이 '예의'에 어긋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발전시키고,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점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진적으로 제반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금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주체가 갈등관계로 치닫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상호 의사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한**:또한 교수, 직원, 학생이 3자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자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것에서부터 불신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수들도 방관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렵습니다. 연구나 사회참여는 활발하나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올바른 교수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나**:또한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일(공부)를 하면서 자기주장을 펼치면 당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놓치면 당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반면 직원은 학생과 교수의 활동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직원에겐 학생과 직원이 만나는 공간은 단순히 행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2의 교육장이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 직원 3자 관계에서 서로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켜지면 불신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석자 : 정현채(문리대교수 · 화학), 나호열(서울캠퍼스 총무과 주임), 조병춘(수원캠퍼스 총무과 주임), 김운회(국문 · 4 문리대학생회장), 한동근(건축 · 4 수원캠퍼스학자추 위원장), 홍민표(철학 · 3 "고함" 편집위원장)
◇사회:오홍섭 본보편집장 (일시:4월 9일 장소:본사 회의실)

주장과 이해가 어우러지는 노력 절실

권리보다 의무충실 필요, 갈등 속에서도 '예의'지켜야

△**정**:학교당국도 총장 1인으로 모든 문제해결을 짐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실무자들이 각자의 해결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총장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견발표와 수렴과정이 학교 당국자에게도 필요하며 지금까지 학교당국내에서도 개방적인 대화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대표나 평교수가 학교 당국자를 만나기가 부적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대화를 하자면서도 없모가 막혀있다면 그 주장은 공허한 것입니다.

△**김**: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는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의 확보를 많은 부분 놓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학교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무, 환경의 의무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를 찾는 노력과 학교측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행될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학생의 권리주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 단대의 주장을 종합, 운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았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감시적인 기능을 갖고 학교가 양심적으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상황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측에 요구해 얻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했으면 합니다. 학교예산의 집행과정은 검증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한**:불신을 누가 만드는가, 그 요인을 학생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원 캠퍼스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 인상의 요인을 학교의 책임에 함께 분석하고, 무당한 인상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높습니다. 즉 학생요구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구들이 차단될 때,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은 힘을 잃습니다.

학생은 학교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학생들에게 인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재정의 문제점들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학교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재정의 문제는 학교와 학생이 함께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자체가 무시되고, 고압적인 태도에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화하자는 것은 학생을 일방적으로 설득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상호 대화와 예의를 지키는 데는 서로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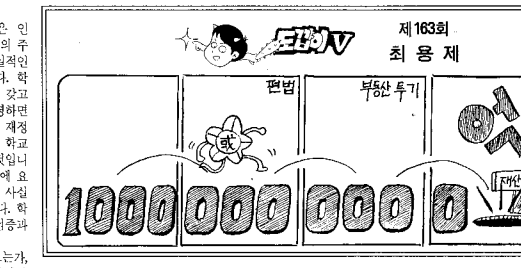
△**정**:제반 문제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학내갈등, 권리주장 과정도 학습의 일부분입니다. 이제는 각 사안들을 학생회 간부들 안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전문가(전공 학과 선배, 교수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낼 때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 이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홍**: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는 타 학생조직이나 개인과의 대화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의 건의사항이나 주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화체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오늘의 좌담은 특별한 주제가 없이 자유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서로의 견해를 확인한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주보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이 깊으면 깊을 수록 대화 또한 깊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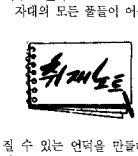
〈정리:조기흠 記者〉



"물안개를 잡아라"

◇…**우주과 獬豸의 잠초인생**

길가에 잡초처럼 살아야 한다
비좁은 자대공간
화(化)초에 내몰리어 수(數)초의 몰속으로 뛰어들지라도.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자대에서 온 몸 부대끼며 싹틔우고 싶다
자대의 모든 풀들이 어울어



질 수 있는 언덕을 만들때까지…

◇…**기회를 잡아라**

"와, 하얀 물 안개가 보인다"
아침마다 애지원에서 희미가 엊갈리는 모습들이 연출되는데 기습적 온수공급때문이라나.
신기루처럼 피어난 물 안개에 옷 벗고 달려든 獬豸들에겐 순간적 온수중단이 더욱 슬프게 만든다고.
하나, 어쩌랴.
몸에 묻은 비눗물을 찬물에라도 씻어내야지.
어르신들, 우리 언제나 마음놓고 샤워한번 해 볼까요?

◇…**바람 바람 개발바람**

요사이 강남에 또다시 개발바람이 불고 있다고
노트북 놀라서 알아보니 조기 영어교육, 조기 일본어교육, 영재개발 바람이더라.
내 아니 영재 만드는 것도 좋고, 국제적 감각을 배우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학부형님네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극복 없는 미아 만드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이구료.

◇…**'바른생활' 예찬**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도서관에 몰리는 獬豸들이 많아진다는 희소식이 들리는데.
평소에 못한 공부 시험기간에라도 충실히 한다면 불행중 다행이라.
노트북 권하건데 그래도 못다한 공부수준낮은 시각은등으로 메꾸려는 獬豸님들 국민학교 '바른생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임하심이 어떨지요.

◇…**되살아나는 열혈들**

33년전 4월, 이 나라 젊은이들이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제단에 거룩한 피를 뿌린 역사가 있었으니…
그 때의 숭고했던 4월 정신이 희미해져만 가니 슬프기 그지 없소이다.
노트북 간절히 바라노니, 獬豸들 가슴속에 선배들의 영이 되살아나 통일조국의 꿋꿋한 일꾼이 되어주오.

간이음악회, 사제지간 정 고양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관악기와 현악기는 그래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타악기는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는지 유래를 알 수 없다.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타악기이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로 인간은 음악과 같이 생활하여 왔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이나 행사에 빠질없이 등장한다.

▼미술교육과는 지난 3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사대앞마당에서 간이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무슨무슨 음악회 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간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이 음악회는 정말로 친근하고 정이 가는 우리 이웃들의 공연장이다. 미교과는 간단한 설물로써 생활 속의 음악인을 초청하고 있는데 쟝르를 살펴보면 민요, 판소리 등의 국악에서부터 제즈 피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요일 오후 6시가 되면 교수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우리 민요를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음악회는 단순히 음악회로 끝나지 않는다. 이어서 교수, 학생들간의 간담회가 새로이 마련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음악회가 교수, 학생 간에 대화 창구를 열어준 셈이다. 모처럼만에 자리를 갖이하는 스승과 제자는 주어진 시간을 서로를 이해하고 토론하는데 쓸아 붓는다.

▼각박한 세태 속에서 음악은 자극적이고 빠른 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제간의 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래서 이번 미교과의 간이음악회 마련은 더욱 가치 있다. 생활 속의 음악인의 연주를 감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문화란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이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사제간의 정이 깊어진다면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이러한 행사가 타단대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급여금·대여금·부조금 청구안내

1. 장기급여
가. 퇴직급여금
①재직청구서(정기 학자동, 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 1통
②법정필재가 임명한 퇴직 증명서(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 발행) 또는 인사발령증서사본 1통
※퇴직사 사본인 경우 반드시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 대조필
※퇴직증명서 발행시 의인, 개인, 발급번호기재
③본인 농협통장인 통장 사본 1통
④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나. 유족급여금
퇴직급여청구서 구비사항 ①,②번 外
③청구자(대표자)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④청구자(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⑤고재등본 또는 제적등본 1통(최학과의 관계가 명시되고 사망일이 정리된 것)
⑥순직 확인서(순직시에 한함) 1통
⑦본인 주민등록증 수령인 대표자 신청서(공동 상속인의 대수인 경우에 한함) 1통
※추록의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다. 상병급여금
퇴직급여청구서 구비서류 ④,⑦번 外
⑤진단서(외료보험 지정 의료기관 발행) 1통
⑥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서(본회 소정양식) 1통
⑦연금수급자인 경우 사립학교교원)의 장해해제등급 결정서(공상에 한함) 1통
라. 중간급여금
①급여청구서(정기 학자공통, 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 1통
②본인 농협은행인 통장사본 1통
③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마. 일시금
중간급여금 구비서류와 같음
2. 학자금여
가. 인가금여금
①재직청구서(정기 학자공통, 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 1통
②본인 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③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나. 입학금여금
①재직청구서(정기 학자공통, 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 1통
②청구서(대표자) 농협은행인 사본 1통
③청구서(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④고재등본 또는 제적등본 1통(최학과의 관계가 명시되고 사망일이 정리된 것)
⑤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공동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한함) 1통
※추록의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⑥사망확인서 또는 폐질 상해가 기록된 진단서 1통
3. 연금급여
①연금급여청구서(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 1통
②인감고보 날인
③인감증명서(연금급여 청구용) 1통
④농협은행인 통장사본 1통
※인감고보 원본대조필
4. 종신급여
①종신급여청구서(본회 소정양식)1통
※인감고보 날인
②인감증명서 (종신급여청구용)1통
③농협은행인 통장사본 1통
※인감고보 원본대조필
5. 대여
가. 단독대여
①대여신청서(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1통.
②본인 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③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나. 보증대여
위 3가지 서류 外
①약부보증 대여시는 보증확인의 인감증명서(연대보증용)1통
②보증보험 대여시는 보험보험청약서(학교비계, 보험계약자만 기재하고 날인)1통
6. 복지부조금
가. 주택재해부조금
①부조금청구서(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1통
②재해확인서(시 면 동장 발행, 단 화재시는 소방서장 발행)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가옥등기부등본 1통
⑤본인 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⑥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나. 재해사업 부조금
①부조금청구서(본회소정양식 학교비계)1통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분가한 회원에 한함)1통
③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사체검안서(원본)1통
④관할경찰서장 발행의 재해사망확인서 1통
⑤농협은행인 통장사본 1통
⑥본인 주민등록증(휴대용)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다. 일반사업 부조금
①부조금청구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사망신고필) 또는 제적등본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③농협은행인 통장사본 1통
라. 결혼축의금
①부조금청구서 1통
②호적등본(혼인신고필)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빙자료 1통
③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바. 회갑축의금
①부조금청구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통
③농협은행인 통장 사본 1통

대한교원공제회 경희대학교 분회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학군사관 후보생(ROTC)제도는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2년간 소정의 군사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도로써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선택된 제도 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1961년도에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하였고 현재는 72개 대학에서 장교를 양성하여 배출된 장교는 약 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군과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장교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최단기간(2년 4개월)에 필할수 있습니다.

②군복무중 조직의 관리 및 지도력을 배양시켜주며 동시에 대학 전공분야를 군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장기복무자는 대학재학중 학비 지급과 각종 장학금의 지급, 그리고 현역복무시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석사.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④사회진출시 학군 사관출신은 우대하여 채용합니다.

이러한 학군사관 후보생(ROTC)이 되기위한 자격은 2학년 남학생이며 선발절차는 입학 및 대학성적, 체력측정,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해 선발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군단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280-2028)

수원캠퍼스학군단

군장학생 모집

군장학생제도는 우수대학생을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도 부터 실시하여 현재에 머무르고 있으며 배출된 인원은 1만여명에 이르고 군의 핵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액과 학습보조비을 지급합니다.

②군복무중 군조직의 관리 및 지도력을 배양시키며 동시에 대학 전공분야를 군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현역복무시 해외유학과 국내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석사·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취득시 정책부서나 관계기관의 교수 및 교관 근무를 하게 됩니다.

④사회진출시 대기업업체에서 우대하여 선발하고 군장기 복무시에는 근무 여하에 따라 우선진급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군장학생이 되기위한 자격은 1,2학년은 재학중인 남학생이며 선발절차는 입학 및 대학성적, 체력측정,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통해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군단 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280-2028)

수원캠퍼스 학군단

학생생활연구소 이용안내

본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학생활을 보내도록 여러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성격 및 심리검사와 여러문제에 대한 상담을 아래의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방문하여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1. 각종 성격 및 심리검사:시청검사, 인성검사, 자아개념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2. 각종상담
①대학의 적응문제
②이성문제, 성격문제, 교우문제
③장래진로문제(취업 및 유학 등)
④가족문제
⑤사상 및 이념문제
⑥종교문제
3. 심리검사 및 상담기간:매주 월-금
(오전 9:30~12:00, 오후 1:00~4:00)
4. 검사 및 상담장소:
서울캠퍼스:학생회관 4층 961-0206, 7
수원캠퍼스:학생회관 2층(0331)280-2128
*전화로 상담접수를 하고 오시면 편리합니다.

학생생활연구소장